

[8월호 119쪽에서 계속]

### 3. 양돈경영에 있어서 품종개량은 최우선 과제

돼지는 각 나라들이 처한 기후, 풍토, 용도에 맞도록 개량되어 품종이 약 100종 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 우량종만도 30여종이나 된다. 이처럼 새로운 품종의 돼지가 생산한 잡종돈도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양돈농가들의 정확한 판단과 선택이 어렵고 어느 품종이 과연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어느 두 품종이 배합된 잡종돈이 가장 이상적인지, 어느 품종을 사양하여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돼지가격이 높을 때는 어느 품종이던, 어떤 사양방법이던 수지를 맞출 수 있겠으나, 가격이 낮을 때는 양돈농가는 흥미를 상실하고 사양 두수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돈경영의 불안정적 경기순환은 해소되어야 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영법칙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돈은 생후 170~180일 정도 사양하여 90kg까지 자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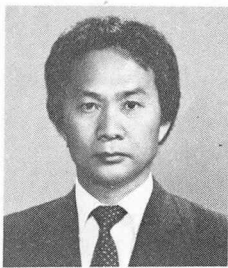
둘째, 사료요구율은 3.0정도 이여야 한다.

셋째, 등지방은 2.5cm 이내여야 한다.

넷째, 도체비율은 70%이고, 근육의 비율은 33% 이상이어야 한다.

개량품종의 목표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이상적이며, 이 이상의 수준을 갖춘 우수한 자질의 품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양돈경영의 새로운 방향과 사양체제



정 찬 길  
(농업경제학 박사,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동시에 양돈경영에 치명적인 것은 사료비이다. 사료가격의 상승과 함께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중간상인의 개입이 심한 상황에서는 생산자야말로 돼지의 체질을 개량하여 발육을 빠르게 함으로서 생산증체를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

#### 4. 사료비는 양돈경영의 관건

사료요구율(체중 1kg 증가에 필요한 사료비)는 양돈경영의 관건이다. 이는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 높은 비중의 사료비는 양돈경영에 치명상이기 때문이다. 돼지가격이 낮을 때 일어난 양돈농가의 파산이 대부분 누적된 사료비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잘 입증된다. 사료비가 돼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5%이다. 따라서, 사료비의 등락이 돼지의 생산원가를 좌우한다. 돼지의 사료는 품질이 좋아야 하고 가격 또한 저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양돈농가는 이 두가지 모두에 신경을 써야한다. 만일 한쪽이라도 빠질 경우 사료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사료의 총생산량중 33.4%로 양돈용이 제일 비중이 높고 다음이 양계용 사료이다. 양돈용 배합사료가 날마다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양돈농가는 배합사료의 원료구성에 꾸준히 관심을 갖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료의 진보와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맥류가 옥수수로 전환하였고, 단백질료가 어분으로부터 대두류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비타민류, 광물질류, 항생물질 등 사료첨가제도 많이 증가하였다. 사료의 원가중 약 90%가 원료이다. 그중의 70~80% 정도는 수입해온 것이다. 따라서 사료원료의 원가등락이 배합사료원가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요즈음의 양돈업은 모두가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료회사들이 자기회사 배합사료야말로 완전한 배합사료라고 선전하지만, 과연 완전한 배합사료인지는 바로 소비자인 양돈농가에서 판단하기에 달려있다. 시판하는 배합사료의 경우에 언제나 값이 오르므로 양돈농가는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배합이 필요하다. 특히, 자돈의 체중이 40kg 정도 때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배합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돼지의 체중이 40~90kg에 이르는 기간에 사료가 제일 중요하다. 사료비 문제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해야할 것은 사료비를 출하가격의 50% 내로 억제하려는 노력이다. 경영상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료비 억제를 어느 범위안에서 계산하느냐는 것이다.

앞으로의 양돈경영은 경제상의 변동을 대응해야 한다. 돼지가격의 폭락과 사료가의 등귀 등 어떠한 경제의 공황 아래서 태연히 살아남을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있어야 한다. 즉, 건실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건전한 양돈경영과 발전을 기대할 경우 마땅히 돼지의 잡식성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 배합사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50% 정도의 자산사료 급여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즉, 50% 정도의 자산사료와 50% 정도의 배합사료로 사양하는 양돈 경영형태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경영여건에 따라 비율은 30:70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사료비의 절감뿐만 아니라 사료원료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피땀흘려 모은 자금으로 착실하게 경영하는 양돈농가는 배합사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유효하게 양질의 저렴한 단미사료 뿐만 아니라 저가의 맥류, 감저류, 농산물 제조부산물, 식당 등에서 먹다



남은 것을 이용하여 배합사료 성분에 뒤지지 않는 자산사료를 조제하여 이용한다. 그러므로 자산사료의 연구, 사료재배방법, 각종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양돈농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

### 5. 방역·예방위생은 양돈경영의 축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양돈업은 필히 개량 품종, 주종사료, 질병방지, 기술개선의 4가지 조건을 가지고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 이 4가지 조건은 자동차의 4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어느 한 바퀴가 없어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양돈경영도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만이 건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방역은 필히 완전하고 철저해야 한다. 즉, 예방을 잘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돈경영에 있어서 예방을 위한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한 항목별 예산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양돈경영이 안전무사할 수 있다. 경영관리가 나쁜 양돈장은 대부분 각종 질병의 침입을 받

는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성 양돈업에 심하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종돈의 교류가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돼지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음으로 자돈의 매매가 마치 나쁜 질병의 전파와 확산의 근원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병인이 불명한 새로운 전염병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돼지의 질병으로 유행성 폐렴, 전염성위축성 비염, 전염성위염 등 수 십종의 무서운 질병들이 있으나 이들의 단독발생은 모르고 통상적으로 혼합감염이 아니면 합병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면서 늘 관찰해야 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전염병의 방역을 위한 제일 타당한 방법은 바로 SPF돈의 사양이다(SPF에 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겠음). 그 밖에 돈사는 관계자외에 출입을 금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병독에 대처해야 한다. 돈사의 출입구 밖으로 소독조와 소독액을 설치하고 깊이는 장화신발의 1/2정도이어야 한다.\*